

이만열 “3.1운동, 이제 ‘3.1혁명’으로”

‘3.1만세운동과 종교계’ 주제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준비 학술심포지엄 열려



“3.1운동은 3.1 혁명이다.” 이만열 박사(숙명여대 명예교수)가 3.1운동을 3.1혁명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23일 태화빌딩 지하강당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준비 학술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을 전한 이박사는 “한국의 민주운동이 3.1운동을 계기로 확연하게 드러났으며, 그 전과 후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선이 되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만열 박사에 따르면, 3.1운동을 치중하는 용어로서 ‘혁명’이라는 용어는 이미 등장했던 것이라고 한다. 그는 “미래 학술적인 쟁점으로 등장했었는데, 그것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역사적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혁명은 그 운동력의 체제를 바꾸었거나 거기에 준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선진들이 이미 3.1혁명이라 부른 적이 있다”면서 “그것은 독립운동적 측면에서는 ‘민족혁명’ 성격을 가졌다고도 했고, 전근대적 정체제를 뛰어넘고 새로운 정치사회체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민주혁명’으로 봤다”고 했다.

특히 강점 후 일제는 일제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포고를 통해 민간에서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했으며, 몇 차례의 조사를 통해 갖고 있는 무기마저 신고해 몰수해 갔다. 그 때문에 종교계 이외에는 민간이 스스로 접두할 수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3.1운동 같은 거족적 민족운동을 조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한다. 이 박사는 “여기서 종교인들의 역할이 나타날 수 있었다”면서 “3.1운동은 그 발발만으로 본다면,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종교계가 연합해 이룩한 거대한 민족운동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만열 박사는 3.1운동이 일제 강점 초기 생존권조차 박탈당한 한국인이 당시 세계의 한 조류인 민족자결주의의 흐름을 기민하게 활용해 일으킨 민족독립운동이요.

이와 함께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주사회 건설운동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운동이 비폭력의 방법으로 동양 평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이루려는 세계사적 목표

조은식 기자



“역시 비와이!”

비와이가 22일 진행된 Mnet 가운데 차트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발견상 합법부문에 선정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수상소감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전했다.

이혜훈 의원 “하나님 대신 사람 두려워하다 동성애에 무너진다”

예장합동, ‘기후 환경 대책 및
동성애 조장 반대’ 세미나 개최

예장합동 사회부가 지방을 순회하면서 “기후 환경 대책, 동성애 조장 반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첫날인 23일에는 오륜교회(담임 김은호 목사)에서 서울·수도권 권역 세미나가 열렸다. 특히 “3.1만세운동과 종교계”란 주제로 열린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이만열 박사의 기조강연 외에도 “무단통치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한국 종교계의 동향”(김승태) “3.1만세운동과 천도교”(조규태) “3.1만세운동과 불교”(김광식) “3.1만세운동과 기독교”(이덕주)란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한편 “3.1만세운동과 종교계”란 주제로 열린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이만열 박사의 기조강연 외에도 “무단통치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한국 종교계의 동향”(김승태) “3.1만세운동과 천도교”(조규태) “3.1만세운동과 불교”(김광식) “3.1만세운동과 기독교”(이덕주)란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이사장 윤경로) 주최로 열린 행사는 한국기독교역사학회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공동 후원했다.

이와 함께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주사회 건설운동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운동이 비폭력의 방법으로 동양 평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이루려는 세계사적 목표

조은식 기자

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름답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든다”고 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지금 동성애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살고 있다. 이 의원은 “바람 알바”라는 것을 이야기 했는데, “이는 동성애에서 여성 역할을 하는 ‘바람’에서 유래된 말로, 가출 청소년이나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3만 5천 원에 이를 하 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 의원은 “동성애는 처음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특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에이즈 감염자를 가운데 15~19세는 20.6%, 20~24세는 1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보면 동성애자들 수는 훨씬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인 그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정부가 3년이나 여야로 바뀔 때마다 정부 입법으로 상정된 이유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5차례나 공식 서한을 보내면서 압박했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반 전

사무총장은 당시 제 모국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동성애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지금 동성애에 노출되며 쉬운 환경에 살고 있다. 이 의원은 “바람 알바”라는 것을 이야기 했는데, “이는 동성애에서 여성 역할을 하는 ‘바람’에서 유래된 말로, 가출 청소년이나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3만 5천 원에 이를 하 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 의원은 “동성애는 처음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특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에이즈 감염자를 가운데 15~19세는 20.6%, 20~24세는 1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보면 동성애자들 수는 훨씬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인 그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정부가 3년이나 여야로 바뀔 때마다 정부 입법으로 상정된 이유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5차례나 공식 서한을 보내면서 압박했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반 전

박용국 기자

선교의 ‘황금어장’ 군선교, 지난해 세례장병 약 17만 명

전체 입대인원 25만 가운데 67% 사역 아래 수세인원 415만 명

군선교는 선교의 황금어장이 분명하다. 지난 2016년 한 해 세례/침례를 받은 군선병은 약 17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입대인원 약 25만 명을 기준으로 67% 가량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광선희 목사, MEAK)가 23일 여전도회관에서 제4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역현

활을 공개했다. 정화하기는 16만 9,671명의 장병들이 세례/침례를 받았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전증수세인원 1만 7,433명이 증가한 것이다. MEAK는 이 가운데 9만 3,383명의 명단을 수집해 2만 6,638명을 교회로 연결 시켜줬다.

또 해군에서는 해군교육사과 해병대교육훈련소 수세인원이 증가했으며, 해군사관학교는 감소했다. 공군은 공군교육사과

들뜨고 신나했던 자신의 모습을 전한 뒤 “오늘은 뭔가 이 ‘가온차트’ 시상식을 이전과 달리 들뜬 마음보다는 차분한 마음 가짐으로 기다려왔다”며 “어릴 적부터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다. 그걸 오늘 전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그 꿈을 하나 이루고 내려려고 한다”고 말을 이어갔다.

이어 작심 한듯 비와이는 “그게 뭐냐면 시상식에서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하

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싶었다”면서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신념을 많이 비웃지만 이게 저의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전 이걸 말하려고 한다”며 요한복음의 한 구절을 읊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한국교회 청년사역(YES Mission) 전문화와 체계화 ▶SNS사역 개발 및 극대화 (모바일 사역전경) ▶한국교회 연합사역 내실화 ▶군선교정책 개발 및 매뉴얼화 등의 기본방향을 결정했다.

특히 MEAK는 ▶한국교회 군목파송 60주년사업의 일환으로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새예배당 건축 ▶비전 2020 실천운동사역 구준한 실천과 내실화 (전도, 세례/침례, 양육, 결연) ▶군선교 교역자운영 제도 완전 개선(정예화, 전문

화, 체계화) ▶후원회원 확보에 집중: 정기후원, 사업후원 ▶특별부설기관 사역강화(한국군선교신학회, 한국군선교교육원, 한국군선교연구소, 한국군상담심리코칭학회, 군선교신문사) 등의 협력사역을 결정하고 협차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군 복음화에 힘써온 MEAK는 사역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415만 4,451명(종누계)에게 세례/침례를 준 것으로 과학됐다.

홍은혜 기자

어릴 적부터 이루고 싶었던 꿈 수상소감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역시 비와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22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7 가온차트 K-POP 어워드’에서 올해의 발견상 합법부문에 선정된 비와이(25·

분명 이병우)가 수상소감 대신 성경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이날 수상대에 오른 비와이는 먼저 지난해 몇 차례 수상식 때 보여줬던 마냥

나님이 말씀을 말하고 싶었다”면서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신념을 많이 비웃지만 이게 저의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전 이걸 말하려고 한다”며 요한복음의 한 구절을 읊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린다”고 소감을 마무리 했다.

한편, 비와이의 소감을 들은 누리꾼들은 “너무 멋있다....진짜 존경스럽다”, “아, 진짜 본 받아야겠다”, “진짜 멋있다. 저기 앉아있는 다른 기독교 연예인들 부끄러웠을 듯 하다”

등 세상 무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당당히 하나님께 감사드린 비와이의 모습에 찬사를 보냈다.

최누리 기자

단체

“새 빛으로 새로운 세상을 볼 당신에게”

각막기증 온라인 캠페인 EYE PROMISE YOU 출범

사랑의장기증운동본부가 지난 20일 월요일 장기기증 인식개선 및 각막기증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EYE PROMISE YOU'를 출범시켰다. 'EYE PROMISE YOU'는 '새로운 세상을 볼 당신에게 하는 약속'이라는 주제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릴레이로 진행되며 각막이식만을 애하게 기다리는 시각장애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예정이다.

본 캠페인은 20일을 시작으로 3개월간 진행되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배우 채정안, 최지우, 공형진, 김성령, 이일화 가수 다이나믹듀오, 김희철 등 유명인 50여명이 참여한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본인의 SNS와 EYE PROMISE YOU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본인의 눈 사진과 시각 장애 환우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진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작성해 업로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각막기증 서약을 독려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각막이식인 서지원 씨와 각막이식인 박진숙(55) 씨의 아들 원종건(25) 씨도 캠페인에 참여한다. 왼쪽 눈으로만 세상을 봐야했던 서지원(24) 씨는 지난 2010년 2월, 기적적으로 각막이식 수술을 받게 됐다. 서 씨에게 새 빛을 선물한 이는 십년 동안 희귀병을 앓다가 하늘나라로 떠난 동갑내기 남학생 이 모균. 서 씨는 이식수술을 받은 후 기증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장기기증의

왔고 원 씨는 지난 2012년, 대학생이 되자마자 본부에 장기기증을 서약했다.

원 씨는 “기적적으로 각막이식 수술을 받은 어머니를 보며 저 역시 먼훗날 시각장애 환우들을 위해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떠나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EYE PROMISE YOU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시각장애 환우들이 희망을 선물받기를 바란다”고 캠페인 참여 소감을 전해주었다.

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2017년 한해는 'EYE PROMISE YOU' 캠페인을 통해 사랑을 약속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면서 “각막기증 서약이라는 당신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이다. 많은 관심과 힘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의 : 사랑의장기증운동본부 흥보팀 02-363-2114(내선5) **홍은혜 기자**

“오늘날 대한민국의 고난, 손정도의 ‘걸례정신’이 해답”

애국지사 손정도 목사 86주기 추모예배

21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는 '애국지사 손정도기념사업회' 주최로 "제12회 정기총회 및 애국지사 손정도 목사 86주기 추모예배"가 열렸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란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먼저 송기성 목사(정동제일교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추모예배가 열렸다. 최광혁 장로(기강장로회전국연합회장, 공동대표)가 기도하고, 전용재 감독(기감 직전 감독회장, 대표회장)이 설교했으며, 민승 목사(김상목기념사업회장, 공동대표)가 축도했다.

2부 제86주기 기념식에서는 전용재 감독이 인사말을 전하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유철 광복회장, 권영희 전 국방장관, 김영중 종로구청장, 구남신 국가보훈처 서울북부지청장, 김기룡 해병선교회장 등이 추모사를 했다. 또 손명원 박사(지사장순, 공동대표)가 유족대표 인사를 하

고, 본부장 유귀순 목사가 내빈소개 및 광고를 했다. 이후 총회가 있었다. 한편 손정도 목사의 유족 손명원 박사는 인사말을 통해 “할아버지는 ‘하나님



손정도 목사

사람이 나라사람, 하나님 사람이 민족사랑’이란 말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목회를 그만두고 독립운동가가 되었던 분”이라 밝히고, “그러나 무슨 직분을 맡든 그는 목사 타이틀을 꼭 지키고 가셨다”고 했다.

손 박사는 특히 손정도 목사가 가준으로 ‘걸례정신’을 강조했다 밝히고, “더러운 곳을 걸레로 깨끗하게 닦고,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가 필요할 때만 내와 쓴다는 정신”이라며 “보이지 않아도 내 사랑이고 내 주인, 내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 일을 하는 것이 걸례정신”이라 했다.

이어 손 박사는 “(손정도 목사가) 우리끼리 나라는 없어도 열심히 일하고 서로 사랑하고 겸손 등의 가치를 가르치시기 위해 걸례정신을 가준으로 두셨다”면서 “독립 성공여부는 동포끼리 겸손하고 사랑할 때 가능하다 생각하셨던 분”이라 이야기 했다. 덧붙여 “오늘 대한민국의 고난도 이 걸례정신 철학이 해답 아닐까 싶다”고 했다.

조은식 기자



행사가 열리고 있는 기독교연합회관

월드비전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①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② 모바일웹 mykids.wv.or.kr로 접속해보세요.

월드비전 회원을 하시면

- 월드비전 Family Card와 함께 아동 정보가 담긴 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편지를 교환하여 선물을 보내거나 아동이 사는 지역에 아동의 번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 1회 미용연례금을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통한 변화

- 월 3만원의 후원금은 차량개량사업을 통해 아동의 영양, 보건, 식수, 교육 및 미용에 헌금을 합니다.
- 아동후원은 한 아동의 배고픔을 넘어 꿈을 기우고 한 아동의 희망이 됩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한동대 추곡 이야기, 추운 겨울.. 농촌에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어

을겨울 계절학기가 막 끝난 지난 1월 11일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추곡에서 '2017년 겨울 추곡이야기'가 시작됐다.

추곡 이야기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딱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로 친해지고 알아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기반 삼아 농촌봉사활동과 공부방 활동에도 열심히 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14학번 한혜지 학생은 “공부방을 진행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생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 매우 좋았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줄 수 있고 또 자기 생각을 나누어 줄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도움을 받은 주민분들과 교회 성

짓뿐만 아니라, 학생들끼리 자급자족하고 서로 일들을 도우며 나눔과 섬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추곡 이야기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딱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로 친해지고 알아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기반 삼아 농촌봉사활동과 공부방 활동에도 열심히 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14학번 한혜지 학생은 “공부방을 진행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생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 매우 좋았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줄 수 있고 또 자기 생각을 나누어 줄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도움을 받은 주민분들과 교회 성

도분들께서는 혼자서 일하면 며칠이 걸릴 일들을 단시간에 끝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학생들에게도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학생들이 주민분들 댁을 방문하



학생들이 노인정을 방문해 마사지와 팩을 해드리고 점심때 떡만둣국을 대접해 드렸다.

한동대 제공
였는데, 간식을 내어주시고 재워주시기도 하면서 많은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했다.

학생들은 추곡에서 나눈 사랑과 섬김

조은식 기자

[서경석의 세상읽기] 왜 사람들이 태극기집회에 참석해야 하는가?

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이라면 젊은이든 늙은 이든 전부 태극기집회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은 꼭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해 왔습니다. 이에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꼭 태극기집회에 나와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최순실사태가 터졌을 때 저는 언론이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소통이 잘 안 되었는데 알고 보니 최순실같은 사람에게 영혼을 빼앗겨서 그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대통령은 하루빨리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하야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선후보자”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입장에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하야/탄핵 사유가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거짓보도를 한 점들이 수없이 드러났습니다. 약 70건에 달하는 추측보도가 전부 사실이 아니었고 언론이 경쟁적으로 하위 선동보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국정농단의 대표적인 증거물인 최순실의 태블릿PC가 JTBC 손석희 사장에 의한 조작물이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태블릿PC가 조작된 것이라는 증거는 전문가가 아닌 저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최순실에게 한 번도 증거물인 태블릿PC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사용료를 냈는지만 확인해도, 기자국에 조회만 해도, 카톡방만 조사해도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아무리 JTBC 앞에 가서 규탄집회를 하고 대검찰청 앞에 가서 두 번이나 5백명 이상의 시민들이 데모를 해도 검찰은 일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앞 항의집회를 보도하는 언론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시민들이



서경석 목사선진화
시민행동 상임대표
기독교사회책임 공
동대표나눔과기쁨
상임대표

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교수)앞에 가서 한달이나 농성을 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의 조작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박효종교수는 보수시민단체의 지도자로 언론도 많이 타고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이번 일로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그랬다가 한 달이 지난 지금에야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의혹을 규명하는 곳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기가 막습니다. 과연 이 위원회가 공정하게 규명할지 다 같이 지켜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촛불집회는 침소봉대하고 태극기집회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근자에 와서서 태극기집회의 인파가 촛불집회를 몇 배나 능가하니까 할 수 없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도태도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편파적입니다. 지금도 언론은 태극기집회를 맞불집회, 친박집회라고 표현합니다. 박근혜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만 태극기집회에 참석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중동을 위시한 모든 언론이 한결같이 탄핵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객관성, 공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독자인데 아침에 조선일보를 읽을 때마다 하루에 두시간씩 두통을 앓았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 구독을 끊었는데 저도 그 대열에 합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최순실사태는 조선일보, JTBC 등 언론의 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에 대한 신뢰가 지금처럼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조선일보도 좌파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신문입니다. 언론이 영혼을 팔아먹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의 나라 현실이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태극기집회는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언론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나를 보여주는 언론은 향한 국민의 저항행동입니다.

최근에는 고령태의 녹음파일이 증거물로 제출되면서 이번 사태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고령태 게이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최순실게이트는 너무도 광우병 촛불시위와 유사합니다. 그 때에도 MBC가 미국산 소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린다는 거짓말을 보도해서 촛불시위가 시작되었는데 이번 촛불시위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겸찰의 래이기도 합니다. 겸찰은 이번에 촛불광풍이 불어 대니까 촛불쪽으로 줄을 서기로 결심하고 확실하게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번 겸찰의 공소장은 기가 막합니다. 대통령에게 반론권도 주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도 기가 막습니다. 겸찰의 공소장과 언론보도를 접부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단핵소추는 없습니다. 그런데 겸찰의 공소장에 대해 청와대측 변호사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대통령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고발된 미르, K스포츠재단도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일환이었다는 청와대측의 설명이 충분히 납득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문화융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기업들에게 문화융성을 위해 투자와 후원을 꾸준히 요청했고 기업의 후원을 받아 공의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두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역대 정권이 한 일입니다. 최순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사구 분이 명확치 않았던 점은 분명히 대통령이 비난받을 일이지만 누구나 다 가까운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지인의 조언을 듣기 마련인 점을 생각하면 이것이 탄핵당할 사유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특검은 더욱 편파적입니다. 이번 박영수 특검은 여야가 공동으로 임명한 균형잡힌 특검이 아니라 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편향적인 기구입니다. 그러나 보니 문화체육부의 블랙리스트까지 문제를 삼았습니다. 사실은 블랙리스트는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정책성이 의심되는 문화활동은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보적 문화활동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 균형잡힌 지원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계 인사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헌법위반이라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문제부 고위관리들을 구속시켰습니다. 나중에는 삼성의 이재용부회장까지 구속시켰습니다. 이제 용부회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을 터이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터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뇌물죄로 위기 위해 이재용부회장을 희생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특검에 대한 애국시민의 분노가 하늘

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태는 종북좌파세력의 래입니다. 소위 촛불민심이라는 것은 다른 아닌 종북좌파세력의 생각입니다. 이번 촛불집회는 민주노총, 전교조, 통합진보당 등 종북좌파 세력이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맥아더불상 철거집회를 주도했던 세력이고, 한미FTA 반대투쟁, 광우병촛불집회, 제주도해군기지 반대투쟁 등을 주도해 온 세력입니다. 지난 십여년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라를 흔들어 온反대한민국 세력입니다. 이 세력이 JTBC가 조작한 최순실 태블릿 PC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당장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만들어 촛불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언론의 왜곡 선동에 놀란 국민이 가세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촛불민심이란 다른 아닌 종북좌파의 선전선동이었습니다. 이식기를 석방하라, 사회주의가 답이다라는 구호가 촛불집회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선후퇴를 하고 국회가 총리를 정하면 임명하겠다고 해도 야당은 조금도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촛불민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종북좌파의 초강경 입장의 눈치를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국민도 촛불민심이란 다른 아닌 종북좌파들의 생각임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은 더 이상 촛불집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촛불세력이 태극기세력을 능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는 짓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사유가 되는지를 규명하는 공청회조차 한 번도 하지 않고 촛불광풍 앞에서 무릎을 꿇고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조기탄핵을 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밟혀죽는다”고 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 박근혜대통령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인데 객관적 규모도 없이 겸찰의 영터리 기소장에 근거해서 탄핵을 결의했으니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사회에서 출세할 만큼 다 하고는 출세를 더하고 싶어 새누리당에 줄을 대어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입니다. 이런 웨빙 국회의원들이 종북좌파와 맞설 뱃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무성, 유승민, 하태경 등 겁쟁이, 기회주의 의원들은 촛불

광풍 앞에서 무릎을 꿇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치명적인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가 바른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른정당>은 보수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행보도 가관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고 인명진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누리당은 보수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김문수전지사가 태극기 세력의 일원이 되면서 새누리당에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의 대선후보가 되고 인명진목사가 당을 떠나야 비로소 당이 정상궤도에 들어설 것입니다.

지금 새한국국민운동은 자유한국당(새누리당) 당원가입운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습니다. 애국세력이 새누리당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보수의 미래가 없다는 자각 때문입니다. 이제는 웨빙정당을 싸움닭 정당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중심정당을 당원중심정당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번 기회에 당원가입운동을 통해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그야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이 지금의 유익함을 극복하고 종북좌파와 싸우는 싸움닭 정당,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서울역에서 대통령 하야반대집회를 시작한 것은 11월 10일입니다. 저는 그때 “매맞을 각으로 대통령 하야반대집회를 개최합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모인 숫자가 2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지금에 와서는 수십만명으로 늘어났고 촛불집회의 숫자를 몇배나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태극기집회에 참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태극기의 바다를 만들 수 있게 되었나? 그 이유는 첫째로 아무리 해도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선동한 내용들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최순실 태블릿PC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

면 지금의 고령태 녹음파일의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 몰아칠 것입니다. 그리고 원로법조인들의 성명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탄핵절차도 위법임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위 촛불민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종북좌파세력의 입장에 불과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처단하기 위한 단두대까지 만들고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등 촛불세력의 모습을 보면서 보통시민들은 경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단핵이 인용되면 두달 내로 대통령선거를 치리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좌파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한 문재인씨는 지난 대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인권법 반대, 남북연방제지지, 북한 주적(主敵) 반대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면 적화(赤化)될 것을 걱정한 60, 70, 80대가 박근혜후보에게 물표를 던져 문재인씨는 “절대로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북한은 젊은 김정은이 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성택을 처형하고, 극도의 공포정치를 행하고,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했습니다. 이러한 김정은에게 전 세계가 진리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이제는 북한이 무너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씨도 북한을 보는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문재인씨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종북을이나 하는 짜祺이 정당”이라고 비판함으로써 본인이 종북좌파의 편에 서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북한을 방문하고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드배치도 반대합니다. 이 입장은 분명한 북핵용인의 입장입니다. 이런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사드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차기 예산으로 배치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하지 못해서 주한미군을 보호하지 못하면 미군은 곧이나 오거나 와로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투자된 외국자본도 한반도에서 급격히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적화(赤化)될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절대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탈북한 태영호공사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북한붕괴가 임박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이 하루 빨리 무너져서 남한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선진국을 향해 폐쇄질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한국은 정반대로 적화(赤化)위험에 빠집니다. 더구나 문재인씨는 민주주의자도 아닙니다. 문재인씨는 현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비판하니까 문재인씨는 국민저항권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저항권은 혁명과 똑같은 말입니다. 현재가 탄핵을 기각하는 인용하든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북한문제를 놓고도 우리나라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북쪽에 북한폐기 세력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북쪽에는 북한용인 세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북한용인 세력은 박지원 국민의 당 대표입니다. 박지원의원은 작년에 5차 핵실험 직후에

대통령을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권유했습니다. 이유는 청조경제의 신 성장 동력을 북에서 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북한이 있든 없든 남북이 상생(相生)하자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앞으로 정확하게 북한 용인의 입장입니다. 북한을 용인하자는 생각은 북한에 굽종하면서 살자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요즘을 기독교인들이 태극기집회에 쏟아져 나오는가? 그 이유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태극기집회는 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탄기국 집회이고 다른 하나는 새한국국민운동 집회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탄기국 집회에 전부 합류합니다. 그렇지만 새한국국민운동이 별도로 집회를 갖는 이유는 약간의 생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탄기국 집회는 박사모가 중심이 되다보니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애정과 지지가 기본이지만 새한국국민운동은 대통령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탄핵유지자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

요한 목표는 좌파정권을 막는 것입니다. 탄핵이 기각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체워야 대통령선거가 졸속으로 치러지지 않게 되어 좌파정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개헌논의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우리국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통령 후보에 대해 사려 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탄핵이 인용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절대로 좌파정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두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라도 우파정권을 재창출해야 합니다. 그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선언을 해야 합니다. 새한국국민운동은 이번 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 도시에서 태극기집회를 갖습니다. 태극기집회를 갖는 도시는 안양, 수원, 안산, 용인, 남양주구리, 파주, 부천, 원주, 고양, 시흥, 의정부, 이천, 춘천, 성남, 울산, 인천, 부산, 대구, 포항, 경기광주 등입니다. 이렇게 각 도시에서 집회를 갖는 이유는 첫째는 서울의 태극기집회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로 각 도시에

서 우파세력을 조직화하여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에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군이 전부 폐퇴했기 때문에 의병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애국시민들이 태극기집회로 몰치고, 이를 통해 조직화를 이루어야만 우파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극기집회로 모인 사람들을 카톡방으로 초대해서 조직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새한국국민운동은 계속 최선을 다해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태극기집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청계광장 집회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과연 우파정권 재창출에 성공할까? 일견 보기에는 대단히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의 행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첫 태극기집회에서 2천명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태극기세력이 수십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 가면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애국시민들이

지금처럼 자발적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태극기집회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을 조직화하는데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자유한국당(새누리당) 당원가입운동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당원가입운동은 새한국국민운동 홈페이지(www.newkoreamovement.com)에서 당원가입원서를 다운받아 기재후 펙스(02-2268-8217, 02-2231-6624, 02-412-1053)로 넣어주면 됩니다. 당원가입운동을 하는 이유는 애국시민들이 정치외과에서 애국집회만 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 내부에 힘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의 주인이 되어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원가입운동을 통해 애국시민의 조직화도 이루어야 합니다. 상황이 급박해서 당원가입운동을 향후 두달 내로 마쳐야 하기 때문에 당원가입운동을 이끌 공동대표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원가입자가 백명이 넘으면 공동대표가 되고 30명이 넘으면 집행위원이 되고 10

명이 넘으면 대의원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대표들이 이 운동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탄핵이 기각될지 아니면 인용될지 알 수 없으나 인용되든, 기각되든 우리의 할 일은 똑같습니다. 전국 각 곳에서 태극기집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역량을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파정권 재창출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돋고, 자원봉사하고, 지역에서 태극기집회 조직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해 광화문 청계광장 집회에 나와 주세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한국국민운동에 질의하려면 010-3912-3705로 해 주시고 성금은 “하나은행 777-910198-01807 서경석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보내주세요. 우리는 성금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외부의 기고 칼럼 논평 성명 등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NCCK 인권위원회] 특검은 계속되어야 한다



NCCK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제 와서 역사적 진실을 두려워 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특검을 중단하고 진실을 묻어버리는 것은 절의와 상식에 기초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역사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다시 비리와 불의의 음습한 역사를 지속하겠다는 반역적 폭거와 다름없다.

우리는 황교안 대행과 정치권의 행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만일 온 국민이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이 역사적 격변의 시기에 민의를 거슬리고 정파적 이해관계 속에서 특검을 중단한다면 이는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검의 과제는 실로 막중하고 그 역사적 의의는 심대하다. 특별히 우리는 특검법 제2조 15호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되는 2011년 일어난 박근혜 대통령 5촌 조카인 박용철 박용수 사망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특검에 넘겨진 모든 사건에 훨씬 더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동안 특검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의 일단을 밝혀내고 김기춘·이재용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 훨씬 더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 역사를 반복하려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더 철저히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끝끝내 황교안 대행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진실을 회피하는 입장에 선다면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특검의 수사를 지속해야 한다. 그길 만이 지금의 이 불행한 역사를 딛고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 발행인 김광수 일반판국장 장세규 국제판국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번호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070-4352-2480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독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미주 기독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NCCK 비상시국대책회의] 우리의 역사적 대 반전에 개입하지 말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오늘 우리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역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주운 겨울날씨에도 매 토요일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주요도시에서 평화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리도 오랜 날 동안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기를 현재일우의 기회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아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낼 것이다.

국회는 적폐청산의 첫 걸음으로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가결했다. 현법재판소는 이를 신중하게 심의하고 있다. 드디어 심의가 끝나는 시간에 이르렀다. 국회의 탄핵을 인용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로써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에 함께 서게 되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에 이른바 ‘북풍’이 개입해 왔던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불리한 상황을 북풍에 기대어 반전해 보려는 정치세력이 있었고, 그것을 지지하는 일부 국민이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

당국이 북한에 무력적 개입을 직접 부탁까지 했던 일도 있었다. 북한 또한 대한민국에 민주적 정권보다 독재적이고 부패하고 호전적 정권이 들어서기를 내심 선호한다는 것을 안다. 이를 북한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해 왔던 것도 안다. 그렇기에 북한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더 좋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우리는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북한 정권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이 처한 이 엄중한 시기에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핵실험을 감행하는 일 따위를 하지 말라! 우리의 이 아름답고 거룩한 대 반전의 행진에 끼어들려 하지 말라!

미국의 트럼프 새 정부는 대 북한 강

경정책을 천명했다. 우리의 엄중한 시기에 북한이 도발하고, 이에 미국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돌발적인 상황을 우리는 상상하고 싶지 않다. 미국 정부 또한 우리의 이 대반전 노력을 깊이 유념해 주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현 정치권은 오늘 한반도 상황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 국가원수가 업무정지되고, 탄핵심판을 받고,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이뤄질 수도 있는 이 유동적 시기에 외적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적(邪)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대한민국의 대 전환을 이루어내게 되기를 기도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의 입장



NCCK 정의평화위원회 남재영 위원장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불리며 현재 국정농단사태의 주범 중 하나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들의 법 감정과 얼마나 펼어져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우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에 적힌 혐의가 구속 수사가 필요한 만큼 밝혀지지는 않았기에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일찍이 검찰은 우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진실규명의 적기를 놓쳤고, 이제 법원은 우전 수석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법리 이전에 현 국정 농단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간 사법부와 검찰이 힘없는 일반 시민에게는 차지 없이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권리실세 앞에서 다른잣대를 적용한다는 세간의 평가를 스스로 인정한 끝이 된 셈이다. 국민의 여망은 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자들을 응징하여 사회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전 수석에 대한 오늘 사법부의 판단은 국민적 대의에 등을 돌린 역사적 오류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국민주권시대를 열망하며 촛불을 든 국민의 뜻을 저버린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정의·평화·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명백한 불의에 눈 감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심판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행사와 원예 있는 철학동화-칠학하는 마이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할아버지의 코트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이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남고 해져서 더 이상 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글쎄, 남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의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하찮고, 오래되고, 물품없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했어요.
진정한 영품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원복 디자이너·보자기 아티스트 이호재

글침아일스워스 | 그린 바바라 에필란트 | 책값 10,000원 | 96쪽 | ISBN 978-89-545-0000-0

전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분야 02-734-7850